전태동

**북한 핵실험관련 중국 및 일본측 공식 반응**

2016.10.12. 전태동

1. 중국측 반응

■ 2016.9.29. 국방부 대변인 楊宇軍 기자회견(9.29 중국 국방부 홈페이지)

(한국 성주군내 THAAD 시스템배치 후보지 평가가 완성된 것에 대한 평론)

- 중국측은 한미측이 한국에 THAAD 미사일방어시스템 배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여러차례 반대입장을 표명하였음.

- 중국측은 앞으로 관련 동향을 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려함으로써, 국가전략 안전과 지역전략 균형을 유지할 것임.

- 강조하건대, 중국인은 말한 것을 책임질 것임.

■ 2016.9.10. 외교부 부부장 張業遂(9.10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외교부부부장 張業遂, 9.10 주중북한대사 지재룡 면담시, 북한의 재차 핵실험에 대해 중국측 아래 입장을 표명함)

- 중국측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 및 대화와 협상통한 문제해결을 일관되게 견지하는 입장임.

-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견지하고 부단히 핵실험을 진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기대에 배치되어 나가는 것이며, 한반도 긴장국면을 악화시킴과 아울러 한반도 평화안정에 불리함.

- 중국측은 북한측이 또다시 긴장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취하지 말고 신속히 비핵화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회귀할 것을 촉구함.

■ 2016.9.5. 시진핑 주석, 박근혜 대통령과 회담(9.5 중국외교부 홈폐이지)

(시진핑 주석)

- 중국측은 언제나 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을 위해 힘써 왔고, 한반도 평화.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한반도 문제는 결국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임.

- 6자회담 플랫폼을 견지하고 각측의 우려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균형있게 해결함으로써표본겸치를 쟁취하여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정을 실현해야 할 것임.

-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THAAD 시스템을 배치하는 것을 반대함. 이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역내 전략안정에 해롭고, 각측의 갈등을 보다 가중시킬 것임.

(박근혜 대통령)

- 관련 문제에 대해 중국과 계속 긴밀히 소통을 유지하기를 바람.

■ 2016.8.24. 한-중 외교장관 회담(8.24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왕이 외교부장)

- 현재 한-중관계는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음. 중국은 미국의 한국내 THAAD 시스템 배치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중국의 전략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그 어떠한 행동도 수용하지 않을 것임.

- 한국측이 이해득실을 냉정하게 따져보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함께 서로 마주보며 나아가고,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타당한 해결방법을 공동 모색하기를 희망함.

2. 일본측 반응

■ 2016.9.9. 일본 수상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성명(9.9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 2270호 등을 무시하고 오늘 핵실험을 실시한 것은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임.

- 북한이 유례없이 짧은 기간에 일련의 핵실험을 강행했고, 금년에만 대량살상무기 운반수단이 될 수 있는 21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북한의 역량이 증강되었음을 고려할 때,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일본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으며, 국제사회뿐 아니라 지역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 일본은 금년 2월의 자체 제재조치와 관련 유엔안보리결의하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임, 나아가 일본정부는 미국,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의 관련국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유엔안보리결의의 효과성을 확보할 것임과 아울러, 유엔안보리의 추가조치를 포함한 대북한 추가 제재조치를 고려할 것임.

■ 2016.9.10. 일본 방위성, 한-일 국방장관간 화상회의 관련 언론발표(2016.9.10. 일본 방위성 홈페이지)

- 이나다 일본 방위성 장관은 일본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서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일-한간 및 일-한-미간에 정보공유를 포함한 긴밀한 협력과 공동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이나다 장관과 한미구 장관은 여러 채널을 통해 양국 국방당국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 합의하였음.